

제25호·2016년 11월 23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동향

러·중·몽, 삼국 간 교통회랑 건설 계획

- 러시아·중국·몽골이 올해 12월 삼국을 연결하는 교통회랑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 - 올해 6월 러·중·몽 삼국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추진하게 되었음
 - 삼국을 잇는 기존 물류루트인 '텐진-자바이칼-치타-울란우데'의 경우 거리가 약 3,600km에 달함
 - 이에 반해 새로 건설 예정인 교통회랑은 '텐진-에르란-울란바토르-카흐타-울란우데' 루트로 총 길이가 약 2,100km이며, 기존 루트에 비해 약 1,500km 절감 효과가 있음
- 삼국 간의 새로운 교통회랑 건설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간 연평균 대외무역량이 약 10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2016년 8월 기준 러시아와 중국 간의 도로운송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90만 톤을 초과함

<러·중·몽 교통회랑>



자료: <http://morvesti.ru/detail.php?ID=58555>(검색일: 2016년 11월 15일), 필자 재구성

자료: <http://morvesti.ru/detail.php?ID=58555>(검색일: 2016년 11월 15일)

이하림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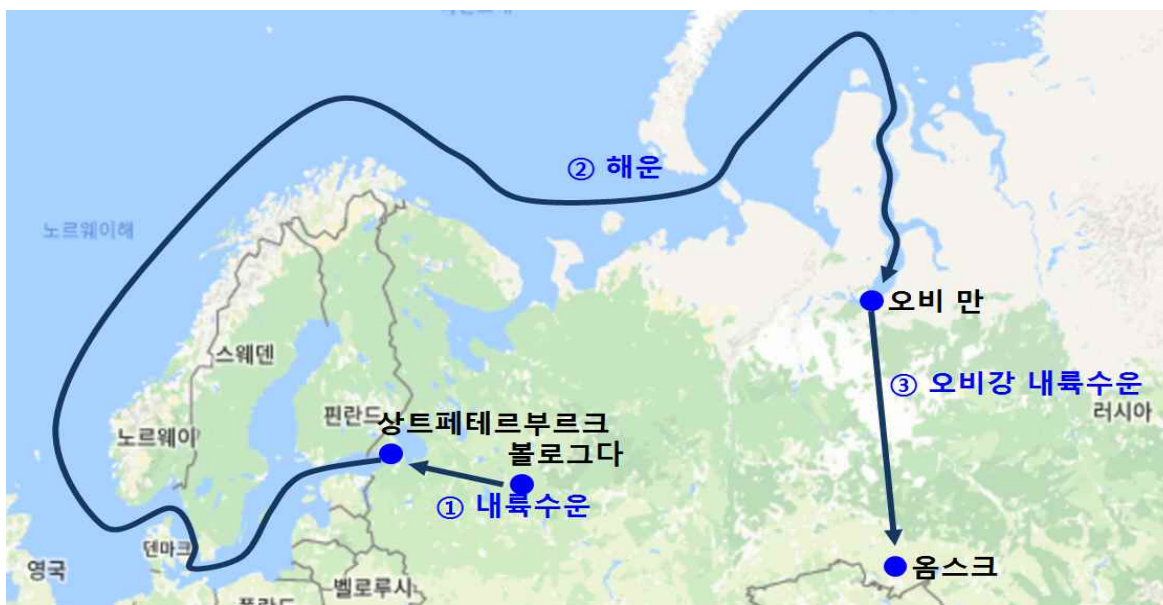
051-797-4758, harimyji@kmi.re.kr



러시아 내륙수운을 통해 약 6,000톤의 중량화물 운송

- 러시아 내륙수운을 통해 볼로그다에서 옴스크까지 약 6,000톤의 중량화물 운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, 운송거리는 약 9,000km였음
- 운송루트는 '볼로그다-상트페테르부르크-옴스크'였으며, 화물운송을 위해 해운과 내륙수운 등을 이용하는 복합운송방법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운송됨
 - 1단계로 볼로그다에 위치한 '볼고그라드네프트마쉬(Vologradneftemash)'사의 장비들이 불가강에 위치한 리빈스크, 오네즈스크, 라도즈스크 호수를 지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까지 운송됨
 - 2단계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해, 노르웨이해, 발트해 등 북극항로를 통해 오비만으로 운송됨
 - 마지막 3단계로 오비강과 이르티시강을 통해 옴스크로 운송이 최종 완료됨

<해운 및 내륙수운을 통한 운송루트>



자료: <http://morvesti.ru/detail.php?ID=59000>(검색일: 2016년 11월 9일), 기사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

자료: <http://morvesti.ru/detail.php?ID=59000>(검색일: 2016년 11월 9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58, usea1004@gmail.com